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4, No. 2, pp. 51~59, March, 2011

지방 소재 중위권 대학의 이공계 신입생을 위한 수준별 영어수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사례 연구

최경미[*,†] · 양우석[**]
[*]홍익대학교 교양과 교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A Case Study on Managing Differentiated Freshman English Classes at the Engineering College of a Provincial University

Kyungmee Choi[*,†] · Wook-seok Yang[**]
[*]Professor, Hongik Univ. at Jochiwon
[**]Professor, Hongik Univ. at Jochiwon

ABSTRACT

The wide range of the Freshmen English placement test scores implies the necessity of differentiating classes. However without a careful and detailed plan, there could be trial and error which would cause harmful and complicated troubles to students. This paper will report a case of grouping Freshmen for English classes at the Engineering College of a provincial university. The main procedures include preparing and executing the placement test, grouping classes, preparing and executing a common final test, preparing grading policy, and reporting. Each procedure is going to be explained and evalua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nglish classes and the ability of students at the Engineering College.

Keywords: Freshman English, Leveling English classes, Placement test, Grading

I. 서 론

교통 및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 경제가 하나의 생활권 안에 들어가면서 전공과 무관하게 영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2002)에 따르면,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전공 관련 이론적인 지식(4%)'보다 '외국어 구사능력 및 국제화 감각(17%)'이 훨씬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 중위권 지방대학 캠퍼스에서 이공계 교수,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개편 시 교과목 비중의 조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재학생의 경우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요구가 27%인데 비하여, 교수들과 졸업생에서는 이것이 각각 60%와 84%로서 1위로 나타났다(백현덕 외, 2005). 이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원하는 대학의 교양교육 과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영어'가 'PC 활용'이나 '기획문서 작성' 등에 이어 41.3%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박진원 외, 2007). 따라서 재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 졸업생들에게 기업이 원하는 영어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가능한 한 대학 재학 중에 영어실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대학이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키워주는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대학이 체계적인 영어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 중요한 첫 단계가 평가를 통하여 신입생들의 영어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함과 동시에 평가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영어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신입생 교양영어의 수준별 수업이 될 수 있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영어수업을 수준별로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 소재 7개 대학 등이 있다(정덕교, 2010). 이 학교들에서 교수들은 진단평가 실시 및 시간표 구성 등 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정덕교, 2010) 있는 반면, 학생

Received October 13, 2010; Revised February 10, 2011
Accepted February 11, 2011
† Corresponding Author: kmchoi@hongik.ac.kr

들은 '영어 수준별 수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중하 반의 학점 부여 기준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연세춘추, 2009; 김영숙·이지연, 2009). 이를 통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영어의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과 장단점(Delli Carpini, 2006; Tomlinson, 2005)을 고려하여, 신중한 계획과 함께 세심한 실행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 수준별 수업의 시행 사례를 통하여 수준별 수업의 운영방식을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진단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지방대 이공계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교수법을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 수준별 수업은 결국 지방소재 이공계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며, 3절에서는 영어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행정일정을 살펴본다. 특히, 웹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분반 수 결정 및 시간표 작성의 중요성, 학생들을 수준별로 분반하기 위한 진단평가지의 준비 및 실시,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분반 결정, 보고서 작성 및 공동기말 고사 후 통합적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 영어교재선정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인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타 전공 학생들의 영어 능력과 비교하여 상급반의 수를 조절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본다. 4절에서는 수준별 수업의 시행으로 얻은 개선점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II.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

대학입시 성적이 중위권 정도로 입학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대학에서 굳이 영어의 수준별 수업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학부별 영어 진단평가의 성적분포를 살펴보았다. Fig. 1의 (a)와 (b)는 이공계 대학과 비이공계 대학 학생들의 진단평가 점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는데, 두 분포의 모양이 비교적 비슷하며, 두 분포에서 모두 성적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일지라도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수준별 수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의 한 근거가 된다.

III. 영어 수준별 수업의 시행

영어 수준별 수업을 시행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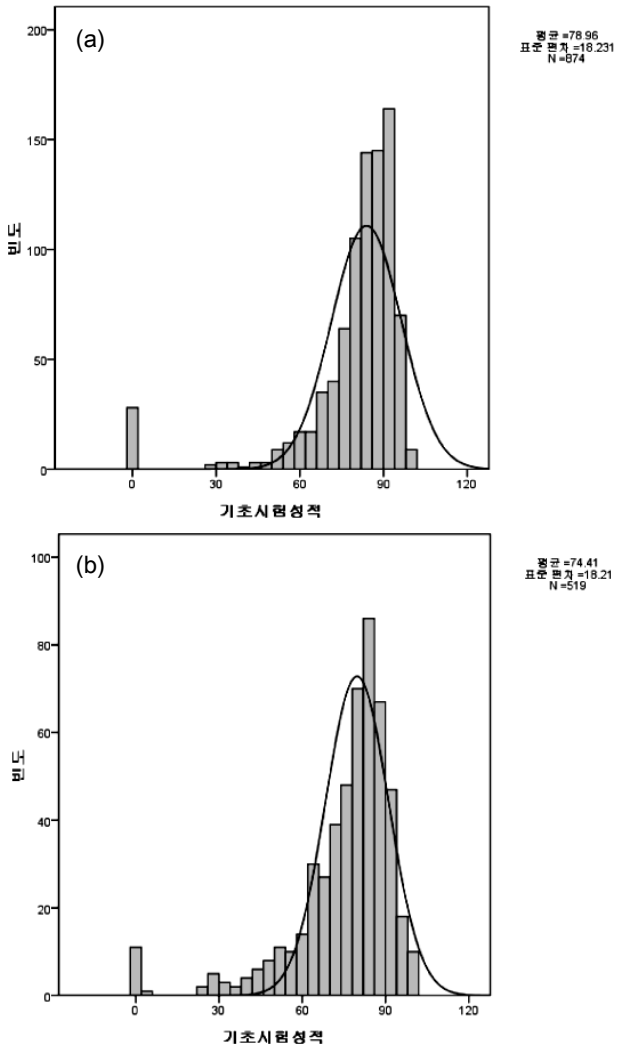

Fig. 1 (a) Histogram of placement test at College of Engineering (b) Histogram of placement test at Colleges of non Engineering

(정덕교, 2010).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영어를 개설하는 교양과,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교학과, 학생들이 속한 학과 및 전산실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일정을 진행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진단평가를 위한 웹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평가지 준비, 평가결과 분석, 분반결정 및 자동분반 프로그램, 수강신청, 영어수업평가에 대한 내규 마련 및 실행, 공동 진단평가 및 성적산출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관리하는 것이 영어 수준별 수업의 성공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 대학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 일정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웹 프로그램의 개발

영어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분반의 근거가 되는 진단평가를 실시해야한다. 우선, 적절한 시행시기를 살펴보자. 봄 학기의 경우 신입생들의 대학입학이 결정되고 난 후와 수강신청하기 전 사이의 기간에 진단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가을 학기의 경우, 여름 방학 끝나기 전과 가을 학기 수강신청 전 사이의 기간에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평가기간이 결정되더라도 지방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거주지와 학교의 소재지가 달라서 분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

지방대의 공간적 특성에 기인한 세 가지 제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신입생의 대학입학 결정이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평가가 가능한 기간이 매우 짧다. 둘째, 대학이 지방에 소재하므로 신입생들이 입학 전 학교에 와서 진단평가를 보려면 교통비 및 숙박비가 필요한 등의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셋째, 외국인 영어 전임교수들이 개강 전에 학교에 와서 진단평가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려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시공간적 또는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지방대의 경우에는 개강 전에 학생들이 직접 학교로 와서 진단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본 사례에 해당하는 지방소재 대학에서는 이 세 가지 제약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경제적인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영어 교과목의 개설을 담당한 교양과는 대학 전산실에 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업무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는 약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테스트하는 데에는 약 1달의 기간이 필요하였다.

2. 진단평가기간 공지

영어교과목의 개설을 담당한 교양과에서는 각 학과를 통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신입생들에게 영어 수준별 진단평가에 대한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이때 학과에서는 학과별 진단평가일시와 웹프로그램 접속 및 사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신입생 영어에 대한 수강신청은 대학 교학과에서 직접 실시하며, 학생들이 마음대로 분반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각 학과 및 교학과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3. 분반수 결정 및 시간표 작성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려면 충분한 교강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선, 영어교과목의 개설을 담당한 교양과에서는 교학과를 통하여 총 외국인 영어교수의 수와 학과별 신입생 수를 파악하였다. 사례에 해당하는 중위권 지방대학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학기에 상경대, 조형대, 광고홍보학부 등의 비이공계 전공 신입생 780여 명이 영어를 수강하였으며, 2학기에는 과학기술대학, 게임학부 등의 이공계 전공 신입생 690여 명이 영어를 수강하였다. 따라서 각 분반 당 신입생 수가 10명 이상 15명 미만이 되도록 학과별 분반수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이 대학의 경우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충분한 교수확보'가 충족되어있음을 보여준다.

타 대학의 사례에서 복잡한 시간표는 수준별 수업을 위한 적절한 규모의 분반과 상하위반의 수를 결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정덕교, 2010)고 지적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신입생의 영어 시간표를 월금 또는 수금으로 편성하도록 정하였다. 하지만 매우 일부의 경우에 강의실과 해당 요일 별 강의 가능한 교수의 수에 따른 제약으로 인하여 월수로 편성하였다. 또한 동일한 학과에는 동일한 시간표가 적용되도록 편성하였다. 상급반의 수는 각 시간대별 또는 학과별로 15%-30% 사이가 되도록 결정되었다. 이때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각 학과의 협조를 통한 충분한 강의실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4. 진단평가 문제지의 선정

타 대학의 경우 진단평가 문제지로 텝스, 토플, 토익 등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 자체에서 준비한 평가지를 이용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영역 중 약 두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정덕교, 2010).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진단평가지를 구입에 별도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신입생들이 배울 수입 교재의 'Review Test Set'을 진단평가로 활용하였다. 이 문제지는 통상적으로 읽기로 구분되며, 선다형 문제 50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진단평가에 쓰기, 말하기, 듣기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진단평가가 학생들의 영어능력의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향후 공간적 또는 경제적 제약이 없으면서 듣기, 말하기, 쓰기 등의 능력을 추가로 측정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자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사례에 해당하는 대학에서는 진단평가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분반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 기말고사와 이 점수를 근거로 각 분반의 상위 학점의 분포를 결정짓는 내규를 만들어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8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진단평가실시 및 분석 후 자동분반

진단평가는 개강 직전 약 1주일 전에 실시되었다. 진단평가 종료와 동시에 자동분반 웹프로그램은 진단평가의 성적분포를 바탕으로 동일한 수업시간대 별 상급반의 수를 결정한다. 상급반의 수가 결정되면, 이 웹프로그램은 성적이 최상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순서대로 상급반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학생들과 진단평가를 보지 않은 학생들을 무작위로 중급반에 배정한다. 이때 교양과는 분반의 기준이 상하가 아닌 상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급반의 수를 최소로 정하였다. 이 절에서는 대학 및 학부별 상급반과 중급반의 분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살펴본다.

진단평가의 결과를 분석할 때, 대학 및 학부별 평가 기간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존재한다. 사례에 해당하는 지방 대학의 경우, 비이공계 신입생의 경우 영어를 1학기에 수강하고, 이공계 신학생의 경우 영어를 2학기에 수강하도록 학사과정이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분반을 나누는 진단평가의 실시 시점이 비이공계의 경우 1학기이며, 이공계의 경우 2학기이므로 평가 시기에는 한 학기의 시간 차이가 있다. 두 집단의 진단평가 시기가 달라서 발생하는 영어능력의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본 사례에서는 두 집단의 진단평가결과를 근거로 비이공계학생과 이공계학생의 영어능력을 통계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우선 Fig. 1에서 살펴보면, 이공계 학생들의 진단평가 점수의 그래프 중심이 비이공계의 그래프 중심보다 좀 더 왼쪽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공계 학생들의 평균 영어능력이 비이공계 학생들에 비해서 낮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대학 또는 학부별 영어성적의 평균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대학 또는 학부별 영어성적의 평균 및 학생 수를 알아보면 Table 1과 같다. 이들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법(강기훈, 2009)을 실시하여 보았다. Table 2의 분산분석표에서 검정통계량이 $F=6.541$로써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즉, 대학 또는 학부별 영어성적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하여, 최소유의차 검정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방법에 따르면 '상경대학, 조형대학, 자율전공'과 '게임학부, 과학기술대학, 광고홍보학부'와의 영어진단평가의 평균이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Fig. 2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게임학부, 과학기술대학 및 광고홍보학부의 평균이 상경학부, 자율전공, 조형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이공계학생들과 비이공계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뚜렷하므로 해당 대학과 학부 별로 상급반과 중급반의 수를 다르게 조절하였다. Table 3은 각 대학 및 학부별 상하 분반 수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과학기술대학의 상급반 비율이 16.3%로 가장 낮으며, 광고홍보학부의 상급반 비율이 33.3%로 가장 높다.

따라서 과기대의 경우에 총 97명이 11개의 상급반에 배정되었고, 총 422명이 45개의 중급반에 배정되었다. 여기서 상급반의 평균이 중급반의 평균보다 약 21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공계학생들의 경우 비이공계학생들에 비하여 영어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기대의 경우 상급반의 수를 비과기대에 비하여 적게 잡았다. 여기서 Table 2와 Table 3의 총수 차이는 진단평가를 보지 않은 학생의 수이다.

Table 1 Means of placement test

대학 학부	평균	학생수
게임	74.4	93
과학기술	74.3	479
광고홍보	75.3	132
상경대학	80.2	303
자율전공	80.0	43
조형대학	79.7	343

Table 2 Anova table of placement test scores to test the mean difference among colleges

	SS	df	MS	F	p
요인	10796.9	5	2159.4	6.5	.000
오차	457864.2	1387	330.1		

Table 3 Distribution of High and Middle Classes

	게임	과학	광고	상경	자율	조형	전체
상급	18 18.6	90 16.3	44 33.3	97 32.0	17 39.5	94 27.4	360
중급	79 81.4	461 83.7	88 66.7	206 68.0	26 60.5	249 72.6	1109
총	97	551	132	303	43	343	1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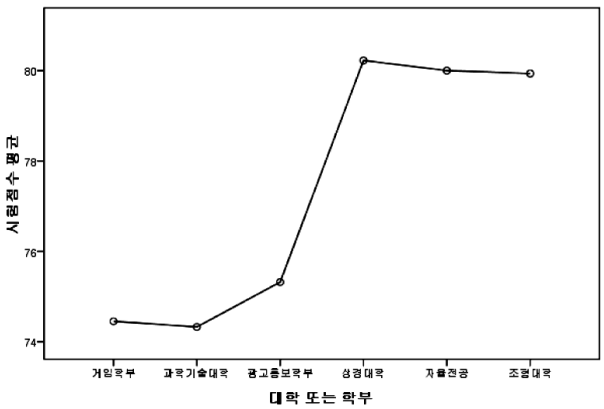

Fig. 2 Means for Colleges

6. 수강신청

진단평가 실시 및 채점 이후 자동분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의 분반이 결정되면, 신입생들의 수강신청이 뒤따라야 한다. 본 사례의 경우, 지방대학이라는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모든 입시 일정이 매우 늦게 끝나기 때문에 진단평가 및 분반 결정 시기가 개강 직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시기는 사실상 신입생들의 수강신청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세심한 수강지도가 필요하다.

신입생들이 영어 시간표와 겹치지 않게 기타 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생이 속한 학과의 영어시간표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수강신청 기간이 거의 끝날 때까지 학생들이 자신이 상급반에 속하는지 중급반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직접 본인의 영어과목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즉, 신입생의 영어 수강신청은 교학과에서 맡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하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강신청 단계에서 학교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7. 보고서

진단평가 실시 및 채점 이후, 교학과에서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교양과에서는 진단평가 결과를 아래 Table 4나 Table 5와 같이 정리하여 각 분반의 영어 교수들과 공학인증센터에 전달한다. 우선 각 영어 교수들은 해당 분반의 각 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근거로 맡은 분반의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공학인증센터로 전달된 보고서는 공학인증센터를 통하여 각 학과로 전달되는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학과에서도 신입생들의 영어실력에 대하여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Table 4 Correct Answer Ratio for each class and item (College of Engineering)

반/I	I1	I2	...	I49	I50
501	1.00	1.00	...	1.00	1.00
502	.36	.91	...	.91	.91
...	...	...	...	...	...
555	.82	1.00	...	.36	.55
556	.64	.82	...	.33	.33
합	.50	.95	...	.27	.47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each class (College Engineering)

분반	mean	n	sd
501	92.40	10	2.8
502	74.18	11	17.2
...	...	...	...
556	65.45	11	23.9

따라서 이 간단한 형태의 보고서는 학생의 소속 학과가 신입생의 영어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각 영어 교수들이 담당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정확한 시작점을 알려주므로 영어수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8. 공동기말고사 및 성적 산출

영어의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을 영어능력에 따라 나누어 수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정한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성적산출 시에 상급반에는 절대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중급 이하의 반에는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공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연세춘추, 2009). 따라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성적분포를 제한하여 관리하고, 불완전한 진단평가로 인한 잘못된 분반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잠재울 수 있으면서, 또한 교수들의 자율성도 보장해줄 수 있는 성적산출 근거가 필요하다.

본 사례의 대학에서는 학생수가 11-15명일 경우 A가 40%, A+B가 80%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학생수가 10명 이하일 경우, A가 50%, A 또는 B가 90%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수업에서 학생수가 15명 이하이므로, 이 기준에 따르면 많은 경우 약 85%이상의 학생들이 A 또는 B의 학점을 받아갈 수 있다. 이는 다른 과목들의 A 또는 B에 대한 상대평가 제한인 70%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므로 공동기말고사를 실시하

고 이를 근거로 전체 분반의 학점분포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동 기말고사만으로 학점분포를 결정할 경우, 각 교수들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공동기말고사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전체 성적분포를 제한하면서도 교수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성적산출 근거가 필요하였다.

전체적으로 성적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해당 교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성적을 '분반내 성적'과 '분반외 성적'으로 구분하여 학생의 학점을 산출하는 다음과 같은 내규를 마련하였다. 우선, 출석, 숙제, 수업 참여도, 발표, 퀴즈, 중간고사 등의 '분반내 성적'을 산출한다. 둘째, 공동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분반외 성적'을 산출한다. 셋째, 각 분반의 공동 기말고사 성적을 이용하여 해당 분반의 A 또는 B의 학점분포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학생들의 공동 기말고사 성적에만 근거하여 상위 25% 학생에게 A, 차상위 35% 학생에게 B를 부여한 후, 분반 별 A 수와 B 수를 산출한다. 넷째, 각 분반 별로 학생의 '분반내 성적'과 '분반외 성적'을 합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각 분반의 교수는 개별 학생의 '총점'에 근거하여 해당 분반의 A 또는 B의 수만큼 개별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학생의 A 또는 B의 비율은 항상 60% 이내로 유지되며, 각 분반의 A 또는 B의 비율은 각 분반의 기말고사 성적에 따라 결정된다.

이 내규를 따를 경우, 전체 학생의 성적을 적절하게 제한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분반 성적도 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말고사에서 A에 해당하는 학생이더라도 출석, 숙제, 퀴즈, 수업참여도, 중간고사 등에서 낮은 성적을 받으면 총점이 낮아져서 최종적으로 A보다 낮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기말고사에서 C에 해당하는 학생이 기타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서 총점을 높이면, 최종적으로 C보다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반내 성적'의 구성과 공동 기말고사 반영 비율을 해당 영어교수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영어교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그러나 많은 영어교수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반영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분반내 성적'을 이용하여 해당 교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반면, 수준별 수업과 함께 공동 기말고사 등의 '분반외 성적'을 통하여 영어교수들이 적어도 공통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내규를 마련하였다.

수준별 수업에서 동일한 수준에 여러 분반이 있을 경우, 최종 학점은 곧바로 해당 교수의 교수법 등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동 기말고사의 공정성에 대한 영어 교수들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본 사례에서는 강의평가가 우수한 3명의 영어교수가 기말고사문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지휘에 따라서 모든 영어교수가 참여하여 문제를 만들도록 정하였다. 위원회는 중간고사 때까지 모든 영어교수들에게 영역별로 일정량의 문제와 해답, 명확한 채점기준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문제은행을 만든다. 위원회는 이 문제은행 중에서 기말고사 문제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이 과목을 가르치지 않는 영어교수 두 명을 선정하여, 적어도 시험기간 1 주일 전까지 기말고사 문제에 대한 오류를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시험 종료 후, 영어교수들은 위원회가 선정해주는 분반의 시험지를 채점하며, 이때 자기 분반의 시험지를 채점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모든 절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반의 기말고사 성적이 학생들의 실제 영어능력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해당 분반의 영어교수는 영어주임교수에게 성적분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반의 기말고사 성적이 낮아서 그 분반의 A 또는 B의 비율이 매우 낮더라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A 또는 B를 받아야 한다고 담당 영어교수가 판단하면, 영어주임교수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해당 분반의 A 또는 B의 분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정하였다.

영어의 모든 영역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분반내 성적'과 전체 분반 중 해당 분반의 위치를 측정하는 '분반외 성적'을 합하여 계산하는 객관적인 성적산출근거는 진단평가나 공동 기말고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추가적으로는 33명의 외국인 영어교수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도 낳았다. 진단평가에 읽기 이외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진단평가가 학생들을 영어능력 수준별로 '정확하게' 나누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내규를 따를 경우 교수와 학생의 노력에 따라서 기말고사 성적이 달라지므로 상급반의 A 또는 B의 비율이 중급반의 비율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 기말고사에도 역시 듣기나 말하기 영역이 없기 때문에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대응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총점' 중 '분반외 성적'인 공동 기말고사의 비율을 해당 교수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분반내 성적'에 듣기나 말하기를 포함시킬 수 있음을 환기시켜서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성적처리 기준은 33명의 많은 외국인 영어 전임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전체 수업의 기획 및 구성에 참여하고, 경쟁하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분반내 성적'은 외

국인 영어교수들이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게 하였고, '분반외 성적'은 외국인 영어교수들이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영어 내용을 공통적으로 수업하게 만들었다. 또한 '분반외 성적'인 공동기말고사는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발하여 영어교수들이 수업내용에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합리적인 성적산출방법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성공적인 수준별 수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공동기말고사 시간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교양과는 학기 시작 전에 공동기말고사 시간을 정하여, 이를 각 학과에 공지해야하며, 각 학과에서는 이를 다시 모든 교수 및 강사들에게 전달하여 동일한 시간에 기말고사 시간을 잡지 않도록 미리 협조를 구해야 한다. 본 사례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의 전체 교수회의를 통하여도 이를 공지하여, 모든 교수들의 협조를 구하였다.

9. 영어 교재의 선정

영어 수준별 수업과 함께 공동기말고사를 실시하면서 공동 영어교재 사용도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영어 외국인 전임교수들의 교수법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지자, 이전과 달리 영어 전임교수들이 영어교재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공동 영어교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영어 전임교수 각자 준비하여 복사한 자료를 수업시간에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교양과는 늘 복사하는 영어 전임교수들로 붐볐고, 학과 예산의 상당히 큰 부분을 복사용지와 토너를 구입하는데 지출해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전임교수들은 복사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래 대기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고, 덩달아 다른 과목 교강사들의 불편도 컸다. 하지만 영어 공동 기말고사로 인한 공동 교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영어 전임교수들의 복사량이 줄어들어서 교양과 예산 낭비나 교강사들의 복사기에 대한 불만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였다.

반면, 신입생 영어의 공동 교재가 중요해질수록 외국인 영어 전임교수들의 교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교재에 대한 불만도 커졌다. 따라서 교양과는 배경이 다른 많은 영어 전임교수의 교재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3명의 자원자로 이루어진 교재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여러 출판사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수입교재들을 검토한 후 최종 3-4 권의 후보교재를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이전 교재와 새 후보교재 및 이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표를 교양과 사무실에 비치해두고, 모든 영어 전임교수들의 교재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위원회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후보교재를 다음 해의 교재를 선정한 후, 교재 수입을 담당하는 출판사와 학교출판부에 알리고, 전체 영어 전임교수에게 이를 공지하였다. 교양과는 매 학년 말, 교재선정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수의 뜻에 따라서 교재를 바꿀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어 전임교수들의 교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몇 년 전부터 초중고에서의 영어수준 별 수업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진경애, 2009). 그러나 대학들에서 진행되는 영어수준별 수업에 대한 사례보고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에 소재한 중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그 운영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영어교육환경 면에서 보면, 지방대학의 재학생은 지리적 특성 상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영어를 따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전공 면에서 보면, 이공계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비이공계 학생들의 영어능력에 비해 상대적 낮다. 따라서 중위권 지방 대학의 이공계 대학은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여, 학생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 영어 능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단평가를 통하여 신입생들의 영어능력을 분석해본 결과, 동일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 사이의 뚜렷한 영어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일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하급반의 경우 자원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교수가 많지 않고, 수준별 수업의 초기 단계에서 하급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섣불리 하급반을 분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본 사례의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의 영어교육을 두 수준으로 나누어 가르치도록 교육영어수업을 재정비하였다. 그 결과 수준별 수업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강의 개발 및 영어능력 향상, 신입생 영어 시간표 및 교과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공계 신입생을 위한 영어교양과정 개편, 외국인 영어교수 관리 등이 동시에 기대되는 장점이 있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수준별 수업은 향후 좀 더 세분화된 교재나 교수법 개발로 발전될 수 있다. 현재는 전체 학생 중 일부의 상위 학생들을 따로 분리한 후, 지정된 교재와 함께 그 이외의 교재를 이용하여 담당 교수가 재량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러나 앞으로 각 수준에 적합한 교수법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상급반과 중급반을 위한 좋은 교수법이나 교재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입생 영어시간표 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교과내용이 전체적으로 통일되는 효과가 있었다. 수준 별 수업 진행 이전에는 매 학기 70여 개에 달하는 10명 내외의 소규모 신입생 영어강의가 월요일 1교시부터 금요일 7교시까지 거의 무작위로 흩어져 있어서, 다른 과목의 강의 시간표를 정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수준별 수업을 위해 학과별 또는 학부별로 시간표를 동일하게 정한 이후 영어가 타 과목의 시간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수준별 수업과 공동 기말진단평가 실시 이전에는 영어교수별로 수업내용이 천차만별이었으나 수준별 수업과 함께 공동기말고사 실시 이후 평균적인 수업내용이 통일되는 효과가 있었다.

본 사례의 경우, 이공계 학생들은 2학기에 처음으로 영어를 수강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런 교과과정은 비이공계 신입생들에 비해 영어능력이 떨어지는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따라서 교양과에서는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이공계 대학생들이 1학기에도 영어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이공계 학생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영어'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이공계 학생들이 영어를 수강할 수 없는 공백기를 제거하는 동시에 비이공계 학생들과 이공계 학생들 사이의 영어능력의 차이를 좁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영어능력과 함께 자신감을 높여주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영어 수준별 수업의 문제점으로는 학생들을 서로 다른 수준으로 나누기만 하고, 동일한 기말고사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발생 가능한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반외 성적'인 공동 기말고사와 함께 '분반내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학점을 산정하도록 내규를 마련하였다. '분반내 성적'은 출석, 숙제, 퀴즈, 참여도, 발표, 중간고사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교수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영어교수가 '분반내 성적'과 '분반외 성적'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여, 분반의 개별성과 교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수업내용 개발과 공정한 평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수준별 수업의 실시가 학생들을 수준에 맞게 가르치거나 영어교과내용을 통일하는 장점도 있지만 이외에도 외국인 영어교수들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점도 있었다. 동일한 과목을 동일한 기말고사로 평가하기 때문에 각 수준 별로 어떤 분반의 성적이 가장 저조한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교수법이 우수한 교수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교수 후보군을 찾아낼 수 있었다. 교수법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직결되므로 우수한 교수법과 함께 문제가 많은 교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연구가 꼭 필요하다.

본 사례에서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영어교육의 한계를 대학이 해결해주는 한 방법으로 영어의 수준별 수업을 제안하였고, 이를 실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과 문제점을 서술하였으며, 미해결된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과제들을 짚어보았다. 이 모든 과정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실적이고 뚜렷한 장기계획과 세심한 실행 및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는 대학교 교학 담당 부서와 영어 과목 개설 학과 및 전공학과 교수들의 지지, 담당 영어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학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키워줄 수 있는 학교의 행정 및 정책적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V. 요 약

동일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진단평가의 성적이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영어수준별 수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치밀한 행정적 준비 없이 영어수준별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낳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에 소재하는 이공계 대학의 신입생 대상 영어 수준별 수업 시행의 사례를 통하여, 수준별 수업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진단평가 계획부터 실행 및 분반, 공동기말고사, 성적산출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차례로 짚어본다. 또한 각 단계별로 요점과 함께 문제점, 개선사항을 알아보며, 궁극적으로 교양영어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본다.

주제어: 교양 영어, 수준별 영어수업, 진단평가, 공동 기말고사, 성적산출방법

이 논문은 홍익대학교 2008년 홍익대학교 한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참고문헌

1. 강기훈(2009). 통계학개론, 자유아카데미.
2. 권성호, 한문섭, 정덕교(2008). 서울캠퍼스 교양영어교육 혁신을 위한 로드맵, 한양대학교.
3. 김영숙, 이지연 (2009). 대학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64**(4): 337-368.
4. 박진원, 황광진, 조규남, 백현덕(2007). 실무형 공학교육에 대한 공학교육 당사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 분석 -홍익대학교 과학기술대학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0**(1): 20-33.
5. 백현덕, 박진원, 심수만, 신판석(2005). 공과대학의 소양교육 개선 방안 연구. **공학교육연구 8**(1): 84-98.
6. 전국경제인연합회(2002). 보도자료. 2002. 12. 24.
7. 정덕교(2010). 교양영어교육에서의 수준별 영어수업: 한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4**(1): 177-197.
8. 진경애, 송미영, 김화경(2009). 수준별 수업에 따른 학생평가 방안 연구: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 연세춘추(2009). 기사 [1600호].
10. DelliCarpini, M.(2006). Scaffolding and differentiating in mixed ability ESL classes using a round robin activity. The Internet TESL journal XII(3). Available at: http://itesli.org/Techniques/DelliCarpini-RoundRobin.html.
11. Tomlinson, C. (2005). How to differentiate instruction in mixed-ability classrooms, 2nf ed. Merrill Prentice Hall.

최경미 (Choi, Kyungmee)
1987년: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졸업
1989년: KAIST 산업공학과 석사
1995년: 미국 UIUC 통계학과 박사
1995년~현재: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 교양(수학)과 교수
관심분야: 통계학, 영어교육, 수학교육 패턴인식, 음향분석
Phone: 041-860-2237
Fax: 041-863-2648
E-mail: kmchoi@hongik.ac.kr

梁雨錫 (Yang, Woo Suk)
1979년: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1986년: 미국 UT 전기공학과 석사
1990년: 미국 NCSU. 전기 및 컴퓨터공학과 박사
1978년~1884년: (주)대우
1990년~1991년: LG전자 부장
1991~현재: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생체인식, 패턴인식, 컴퓨터비젼, FA
Phone: 041-860-2568
Fax: 041-863-7605
E-mail: wsyang@hongik.ac.kr